" 광야로 나아가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자. "

< 갈라디아서 1장 17절 >

- 세례와 입교를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와 입교식은 10월 첫째 주일에 있으며, 그동안 준비교육을 합니다.
- 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가 주최하는 '대안교육기관법 활성화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토론회'가 9월 4일(토) 오전 10-12시에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 다음 주일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주일입니다. 총회를 위한 헌금을 준비해 주십시오.
- 교회운영위원회 정기회의가 오늘 오후 2시에 교육관에서 모입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강단을 꽃으로 :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구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 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기 관 : 공동체교회 · 공동체학교 · 생활공동체 · 부속기관
선교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38 - 34 호
2021년 8월 29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기대속에서

아무리 8월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해도, 포천은 아직 여름에서 벗어나고 있진 못한가 봅니다. 그렇지만 이따금 내리는 장맛비와 태양 빛이 서로 교차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꽤 기분 좋은 일입니다. 어떤 때에는 언젠가 비가 그치고 햇빛이 나올 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다른 때에는 비가 내려서 마른 땅을 적셔주리란 기대감으로, 또 어떤 때에는 이렇게 기묘한 즐거움을 주는 계절이 다시 돌아오리란 설렘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설렘에는 자연의 섭리로 맺어진 열매들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행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절에 맞게 사랑의 수고로 길러진 각종 소산물을 맛볼 수 있는 건 축복임이 분명합니다.

물론 열매를 맺기까지는 보통 몇 달에 이르는 성장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도 꾸준히 해주어야 하지요. 내버려 두어도 잘 자라는 식물도 있지만, 대개는 잡초들이 훨씬 빠르고 강하게 자라서 영양분을 뺏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식물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멋들어지게 모자와 장화, 장갑과 호미 등으로 단단히 무장하고서 밭으로 나가보면 봉착하는 난관이 있습니다. 초보자의 눈에는 열매가 맺혀있지 않으면 그게 그거 같아 보이는 것이죠. 멋쟁이학교의 노작 시간에도 매년 일어나곤 합니다. 우람하게 자라난 잡초가 심겨둔 식물인 줄 알고, 그것만 남겨두고 죄다 뽑아버리는 경우들 말입니다. 이 일을 반복하다 보면 경험에 따라서 '이맘때쯤엔 옥수수, 이때는 방울토마토, 상추, 이때는 고구마' 등을 체감할 수 있게 되지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 과실들을 기대하면서 한 해를 보내게 됩니다.

때론 여러 가지 이유로 좋은 과실들을 얻을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전염병이 돌거나, 동물의 침입 등 원인은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 농부들에게서 듣는 말이 있습니다. "올해는 글렀어. 내년을 봐야겠네." 이 말은 다음을 향한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항상 모든 열매가 건강하고 좋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식물을 돌보려 애쓴다면, 식물은 살아남으려 애씁니다. 식물도 자신의 내면에 잠재된 가능성대로 자라나려고 천천히, 하지만 온 존재를 바쳐 성장합니다. 어쩌면 밭의 농작물이 그렇게 맛있게 느껴진 데는 사람이나 식물이나 온갖 위험과 시련, 괴로움을 겪어내고 맺은 것이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음'을 기대하며 준비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예수님께선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누가 6:44)."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사과를 내는 나무는 사과나무임이 분명하고, 포도를 내는 나무는 포도나무란 것이지요. 문맥을 따라 보면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의 결과물을 내놓을 때, 그분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거란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며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인생에서 나이테를 한 획씩 더 그어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말입니다. 반복되는 괴로움 속에서 인생이 무르익고, 흔들리는 과정을 지낸 후에 감동적이고 멋진 열매를 내놓는 것. 그리스도인에게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 아닐까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자라는 꽃은 없고, 우리 모두는 아름다운 열매를 틔우는 과정을 지내는 중입니다. 옆에서 같이 자라는 지체들과 함께 주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분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서로를 사랑으로 바라보아야겠습니다. 지금은 부족해보이는 서로이지만, 모든 지체의 내면에는 크신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더 나은 다음을 향해 나아가길 기대하며, 멋쟁이학교 임시 교가인 <기대> 찬양을 함께 나눕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네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 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디아코니아사랑방 이어진 전도사

한주간의 말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

〈수요기도회〉

성경 : 시편 65편
제목 : 우리를 돌보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자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68 183 218 220 542

1. 내용관찰(what)
<문단구분>
1절~4절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원을 지키자
5절~8절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
9절~13절 땅을 돌보시는 주님

2. 내용의 의미(Why)
주님께 죄의 용서함을 받고, 주님의 뜰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주님의 연회에 참여하며, 복된 삶을 누리게 됩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무질서한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질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비로, 돌보시는 섭리는 기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3. 의미의 적용(How)
①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자.
② 구원을 베푸시고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에 안정을 찾자.
③ 우리와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발자취를 발견하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놀라운 권세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예수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권세! 그것을 받아서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 안에 내 방식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그 방식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린 내면 안에 잘못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할 수 도 없고 문서를 검색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 기간을 통하여 잘못되어 있는 이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재구성하고 재창조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졸물이라.' 이것을 우리가 외우고 있지만, 이 말씀이 실제화 된다는 것은 죽이고 살리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 말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향취를 맡으시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이러나 함께 가자. 이제는 겨울도 지났고, 꽃이 피고 새의 노래 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미 새로운 피조물인 것으로 취하고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인 작업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해 가실 것인데, 이미 완전히 새롭게 된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복을 취하는 겁니다. 이제 나 자신을 향하여 이야기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마음에 늘 소원하는 것은 '주님, 산에 가서 소나무를 붙들고 흔들 때에 하나님 안 오셔도 괜찮아요. 나는 소나무를 뽑을 힘도 없고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지만 내 삶에 현장 가운데 주님이 함께 임재해 계신다는 그것만은 늘 알고 싶고, 보고 싶습니다. 내가 그런 소원을 가지고 늘 불렀던 찬양도 그런 임재의 찬양이었습니다. 내가 말씀을 전할 때에 주의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내 삶에 현장 가운데에 있을 때에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늘 살고 싶습니다. 나에게 그 소원이 너무 많았습니다.

헤세드 공동체. 김성옥. [회복] 중에서

주일공동예배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오전11시 설교자 : 권재만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초청의 말씀	로마서 12 : 1	인도자
*예배의 찬송	322	다함께
*기원의 기도		인도자
*기원찬송	영광 영광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참회의 기도		
*용서의 말씀	시 편 51 : 7	인도자
*신앙고백		다함께
고백의 찬송	395	다함께
공동기도		다함께
목회기도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성경낭독	골로새서 3 : 5 - 17	설교자
성가대 찬양	412	사랑방
설 교	"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	권재만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의탁의 기도		설교자
응답의 찬송	342	다함께
*봉헌기도		인도자
*영광찬송	455(3)	다함께
*위탁의 말씀		설교자
*강복기도		설교자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김중필 이현숙 / 봉헌위원 : 이윤희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솔 석지인 옥대철

예 배

공동기도문

저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새 사람으로 인도 하소서. 아멘.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옛 본성과 새 사람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3장은 그리스도인의 실천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다른 인간의 모습이 나옵니다. 옛 본성은 화내는 것과 나쁜 의도와 방해하는 것,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는 것인데 용납과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옛 본성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새 사람을 입는 다는 것 사도 바울은 대조적 모습을 통해 믿음의 공동체의 바른 행위와 언어습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것과 말에 대한 옛 본성을 버리고 사랑으로 친절과 겸손, 온유와 용서를 하라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옛 본성의 유혹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으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영적인 게으름과 무지를 벗고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계속 옷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하나가 됩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취한 잠에서 깨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옛 본성들을 돌아봅시다. 정욕이나 탐욕으로 가득한 성적인 유혹과 말의 유혹들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고 친절하게 대하며 겸손과 온유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 나갑시다. 이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꿈꾸시던 나라가 이 땅 위에 드러날 것입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권재만 목사 / 기도 : 김중필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한 달의 방학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가정에서 많은 사랑을 나누고 온 꾸러기들은 에너지가 철철 넘칩니다. 학교에 오고 싶었던 친구들이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아침 모임 전에 막 뛰어다닙니다. 흥분한 상태의 아이들은 너무나 밝은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만난 선생님들도 너무 반가워 똑같은 표정을 합니다. 다시 꾸러기학교에서 즐거운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방학을 보낸 친구들은 하고 싶은 놀이가 많습니다. 지난 학기에 했던 놀이들과 새로운 놀이까지 일주일 내내 놀이를 바꿔가며 놀았습니다. 이번 주는 미용실 놀이가 가장 인기가 많았습니다. 미용실 놀이는 준비할게 많습니다. 카페트 위에 머리 자를 의자와 머리 자를 때 쓰는 타이어, 그 외 목에 두르는 천, 미용 도구인 장난감, 머리빗, 머리끈을 의자 옆에 가지런히 정리해 놓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다하면 헤어디자이너 선생님에게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헤어디자이너가 한 명이었는데 지금은 헤어디자이너도 많아지고, 손님들도 많이 찾아옵니다. 또 시술해주던 머리스타일과 염색 색깔들이 다양해졌습니다. 아이들은 미용실에서 어떻게 했는지 관찰하면서 재연을 하는데 거기에 상상력을 더해 더 재밌는 놀이를 만들어갑니다. 한 주간에 많은 놀이를 하지만 아이들의 놀이에서 상상력과 생각이 쑥쑥 자라는 모습에 무궁무진한 성장 가능성을 봅니다. 우리 멋진 꾸러기들이 어떤 어른이 될지 또 다시 기대에 찬 모습으로 바라봅니다.

< 교사 : 이어람 >

어린이학교

드디어 개학을 했습니다. 화요일에 선생님들은 코로나 검사와 개학을 위한 정리를 했고, 친구들도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모두들 음성판정을 받아 등교할 수 있었습니다.

목요일엔 반별 모임을 갖고 긴 쉬는 시간을 통해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금요일에는 2학기 임원 선거가 있었고 각 학년별 학년장을 뽑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 부터 수업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2학기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아직 방학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친구들의 생활 습관이 다시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아직 코로나 백신 2차 접종을 끝내지 못해 학기 중에 접종해야하는 선생님들의 상황과 학교 운영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교사 : 조 익 >

멋쟁이학교

8월 29일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개학과 동시에 대면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학생들이 등교하게되면 방역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멋쟁이다운 교육을 위해서는 대면수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등교를 위한 사전모임이 24일 줌으로 있었습니다. 멋쟁이들 모두 건강했고, 특별히 아픈 친구들이 없어서 다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학 중 안전하게 돌보셨음에 감사했습니다. 개인방역을 잘 지키고 외출을 자제해준 멋쟁이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끝난다고 말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래왔듯이 멋쟁이학교는 이번 어려움도 이겨내고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등교하는 동안 마스크와 개인방역, 소독 등에 불편함을 겪을 멋쟁이들과 선생님들, 함께 지내시면서 이것저것 신경쓰시게 될 생활공동체분들, 그리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보내시는 학부모님들과 항상 기도로 후원해주시는 모든 공동체분들이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 교사 : 이돈희 >

속마음카드

지난 여름방학을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속에 지내는 바람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놀다가 의견이 달라 다툼이 생기는데 보통 '그래 형 마음대로 해. 흥" 하며 민용이가 방에 들어가면 진용이가 '그래 내 맘대로 한다~" 라고 대꾸한다. 그러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진용이가 방으로 들어가 민용이를 달래서 데리고 나와 다시 같이 논다. 그런데 이렇게 수월하게 화해할 때도 있지만 민용이가 쉽게 풀리지 않을 때는 온 식구가 동원되기도 하는데, 좀처럼 자기 얘기를 잘 해주지 않아 왜 그러는지 알아내기 위해 애를 쓸 때가 생긴다.

"민용아, 네 마음을 말해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네가 어떤 마음인지 알 수가 없어" 라고 말해주고 속마음 카드를 만들기로 했다. 종이를 카드 크기로 잘라서 얼굴표정을 그려넣었다. 기쁘다, 슬프다, 짜증난다, 화난다, 속상하다, 자신있다, 재미있다.. 등 표정을 어떻게 그려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하면 민용이가 어떻게 그리라고 알려주기도 했다. 만든 카드를 거실에 잘 보이는 자리에 걸어두고 말하기 힘든 속마음을 표현할 때 사용하기로 했다.

며칠 뒤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또 형이랑 싸우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설거지를 마치고 뒤를 돌아보니 식탁 위에 화난다, 속상하다, 짜증난다 카드 3장이 놓여 있었다. 그렇게 그 세장의 카드는 세트처럼 가족들에게 날아올 때가 있다. 카드를 들고 민용이랑 얘기를 하니 얘기가 더 잘 풀리는 느낌이다. 사실 민용이의 이런 모습은 엄마인 나를 닮아서 인데 나도 내 맘을 표현하는 좋은 방법들을 실천해 봐야겠다. (이 글을 읽고 민용이에게 아는 척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노미현 사모

〈수요 정오기도회〉

말 씀 : 요한복음 14장 13-14절
인 도 : 권재만 목사
기 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아프가니스탄의 기독교인들을 위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의 대부분을 장악하였고 북부지역 반군과 대치중에 있습니다. IS와 알카에다 등 이슬람 무력단체들 또한 유입되어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몇 없는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협력자라 하여 죽음의 위기 앞에 놓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기독교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달라 기도합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민들레 공동체>
(1) 민들레 대학이 시작되는 가운데 신입생모집이 잘 이루어지고 재정이 든든해지도록,
(2) 주님의 은혜와 치유가 계속될 수 있도록
(3) 베이커리, 양계, 체험학습 등 공동체기업이 활성화되어 가기를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공동체 학교들>
(1) 학교들의 개학이 무리 없이 잘 이루어지도록
(2) 다음주부터 있을 백신접종으로 인해 학교 운영에 어려움 없도록 기도합니다.

< 생활공동체 소식 >

무더운 여름이 다 지나고 가을 장마가 잠깐 다녀간 한 주입니다. 한 주 내내 비소식이 예상되었지만, 비가 오지 않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선선한 바람이 다소 이색적으로 느껴질만큼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꾸러기학교는 월요일부터 개학을 했고, 어린이학교는 목요일에 개학을 해서, 긴 방학을 마치고, 반가운 얼굴로 만나서 생활합니다.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마당에 울려퍼지니 내내 조용하기만 하던 공동체의 마당에 활력이 돕니다. 여전히 코로나 상황 하에 조심하며 생활하지만, 서로 만나고 대면해야 확실히 기쁨이 더하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 마당의 모래사장은 새로 한 트럭 수북이 쌓아 놓았지만, 어느새 꾸러기 어린이들이 헤쳐서 벌써 예전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공동체 교사와 식구들도 모두 백신을 접종해서, 조금 안심이 되지만, 그래도 날마다 하나님께 보호와 안위를 기도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었으니 결실이 있고 보람 찬 후반기를 지내기를 기도합니다.

< 정재훈 목사 >